

소속감은 높지만 ... “대외이미지 개선 시급하다”

2017 재학생 만족도조사
만족도지수 1위는 도서관
조예대 등록금 만족도 최저

본교 학부생들은 ‘홍보활동 및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처 평가팀이 진행한 ‘2017 재학생 만족도조사(만족도조사)’ 중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에 따른 결과다. 만족도조사는 학부생 934명, 대학원생 54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13일~24일 진행했으며, 학부생에게는 ▲강의실 ▲교수진 ▲교육과정 ▲대학 소속감 ▲도서관 ▲등록금 ▲복지시설 ▲장학금 ▲정보화 ▲진로지원 ▲학생자치활동 ▲학생지원서비스 ▲행정서비스 ▲홍보활동·이미지 등 14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100점 만점)

평가팀이 2월27일 제공한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본교 홍보활동 및 이미지 영역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데 비해 만족도는 낮아(56.56

점)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대학의 홍보활동이 다양하다’는 항목이 40.51점, ‘우리 대학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다’는 항목이 41.7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도 대외이미지 개선을 요구하는 답변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학교 홍보를 강화했으면’(76건), ‘입결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67건)이라는 답변이 차례로 뒤를 잇는 등 전체 의견의 22.8%가 홍보활동 및 이미지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소속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강점 영역으로 분석됐다.

본교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지 평가하는 ‘대학 소속감’ 영역의 경우 학부생이 인식하는 중요도가 39.21%로 대부분의 다른 영역이 중요도 1~12% 범위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았다. 만족도 또한 72.9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영역과 관련한 세부 항목에선 ‘우리 학교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80.30점), ‘주변 사람에게 우리 대학에 입

학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79.06점)는 내용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지수를 기록한 영역은 ‘도서관’이었다. ‘다양한 자료가 있다’, ‘자료 검색이 용이하다’ 등의 이유로 78.0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9.58점 오른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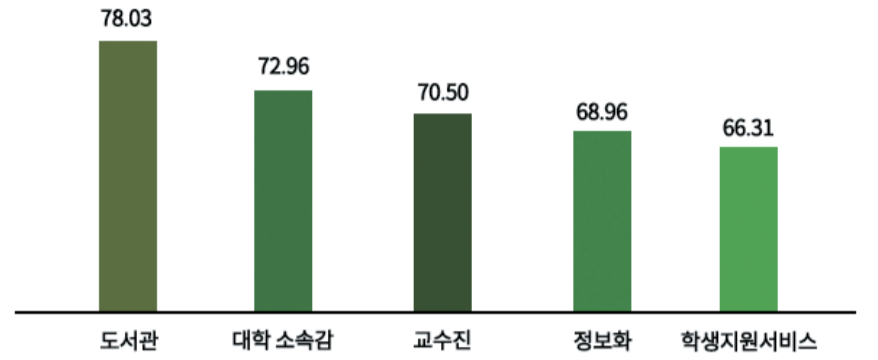
반면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타난 영역은 ‘등록금’이었다. 세부 문항에서도 ‘등록금 금액이 적절한 편이다’가 28.05점, ‘등록금 대비 교육의 질이 높다’가 38.36점,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가 40.15점으로 나타나 총점 10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단과대학(단대)별로는 조형예술대학(조예대) 학생들의 등록금 만족도가 19.12점으로 가장 낮았다. 조예대는 종합만족도 점수에서도 57.78점을 기록해, 모든 단대 중에서 유일하게 60점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조예대는 2015년, 2016년 조사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단대별 종합만족도 점수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예대 재학생 A씨

2017 재학생 만족도조사 TOP5 (학부생 대상/점수)

그래픽=김보영 기자 b_young@



는 “조예대의 낮은 만족도 점수는 등록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높은 등록금에 비해 재로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본교는 학생들의 작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 만족도조사 종합만족도는 69.63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약 2점이 상승했다. 항목별 만족도는 ‘논문 지도’, ‘연구활동참여제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이 소폭 상승했다.

대학원별 종합만족도는 세 개 대학원 모두 70점을 내외를 기록했다. 전문대학원이 70.49점으로 셋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일반대학원의 종합만족도는 70.39점으로 직전보다 1.81점 올랐으며 그 중 교수진 항목이 81.11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수대학원은 재작년 대비 0.16점 하락한 68.40점을 받았다.

김승희 기자 dkdle096@ewhain.net
박민재 기자 pak682@ewhain.net



더 높여, 더 멀리! 직벌의 학사모 던지는 이화인들 26일 오후2시 대강당에서 열린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3693명이 졸업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화미를 건넨 최려나(영문·17년졸) 동문이 졸업했고 「지선사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유교·01년졸) 동문이 외부 축사자로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대강당 앞에서 학부 졸업생들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단과대학별로 수송 색이 다른 학사모를 던지며 활짝 웃고 있다. 선모는 기자 monsikk@ewhain.net

대학가에도 미투 운동 확산

본교생 A씨는 작년 말 평소 오빠, 동생 사 이로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A씨는 맥주를 시켰다. 그런데 그날따라 취기가 빨리 올라왔다. A씨가 취하자 B씨가 갑자기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집으로 갔다.

당시 취해있던 통에 기억이 희미했던 A씨는 술자리에 같이 있던 또 다른 남성에게 ‘내가 기억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너 그때 멀쩡했잖아’라고 했다.

A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마시던 맥주에 B씨가 일부러 소주를 탔는데, 그것

도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취했던 것”이라며 “아직도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본교 동문인 서지현 김사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그간 대학가에서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트폭력 등 본인이 당했던 경험을 익명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거나 학내에서 미투 전용 게시판을 만드는 등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대학들 차등등록금 산정근거 공개하라”

조예대 학생회 국회 관련법 통과 촉구

본교 조형예술대학(조예대) 학생회가 속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26일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이 높이 책정된 예술대 등록금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본교 조예대 학생회 ‘조예나민 C’는 그동안 학내에서 요구가 많았던 예술대의 높은 등록금산정의 근거 공개를 위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책위는 작년 9월 차등 등록금의 불합리

함을 느낀 전국 25개 대학 예술계열 학생들이 모여 결성했다.

조예대 학생회 공동대표 신혜솔(동양·16)씨는 “이와 같은 사안이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책위로 활동하면서 타 학교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조예대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대책위와 함께 조예대 학생회에서도 등록금 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채원 기자 cw.ante.park05@ewhain.net

학적팀 ‘강의 매매’ 꼼짝마

8일까지 이화 커뮤니티 모니터링

교무처 학적팀이 ‘강의 매매’ 단속을 진행 중이다.

학적팀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 기간이 끝나는 8일까지 강의 매매 및 양도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모니터링)을 통해 강의 매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강의 매매는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해당 과목 수강신청에 성공한 학생이 과목을 거래하는 행위다. 모니터링 요원은 학적팀 직원, 조교, 인턴 등으로 구

성태였다. 요원들은 본교 커뮤니티 이화인(ewhain.com)에 올라온 게시물 중 강의 매매 및 양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글을 발견할 시 해당 학생에게 전화해 학적에 위배된 사항임을 알리며 삭제 요청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강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도입됐다. 학적팀에 따르면 매해 모니터링을 통해 평균 20건의 게시물이 적발된다.

그러나 약 4년 동안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강의 매매 및 양도 행위는 공공연히 이

뤄지고 있다. 본지(1514호 2016년 3월14일자)에 따르면 2016년 3월2일~8일 강의 매매 게시물은 이화인 열린 광장에 31개, 에브리타임(everytime.kr)에 139개가 올라왔다. 본지 확인 결과 2018학년도 1학기 전체 학년 수강신청이 이뤄졌던 2월8일 하루 동안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강의 매매 및 양도 관련 게시물이 283개나 게시됐다.

모니터링이 일부 커뮤니티에만 한정돼 모니터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시물도 상당하다. 학적팀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제작된 커뮤니티는 인증 절차가 어려워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수지(간호·15)씨는 “에브리타임에서 수많은 강의 매매 글을 봤음에도 모니터링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는 다양하네 모니터링의 반경은 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의 매매 및 양도 행위는 본교 학칙 59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러나 학칙을 어겼을 경우 받는 징계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의 매매 및 양도 행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뜨겁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수강신청 매매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135개의 공감 을 받기도 했다.

이은지(심리·17)씨는 “강의 매매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열린 강의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생긴 현상 같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도 강의

가 절실한 학생들은 공여자책의 심정으로 강의 매매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의 매매 및 양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아닌 강의 수용인원 확대와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적팀은 “모니터링은 매학기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이외에도 강의 매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 요청 및 교수 채용과 같은 해결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tnals4131@

금주의 채플

이번 학기 채플은 3월 19일(월)에 시작합니다.